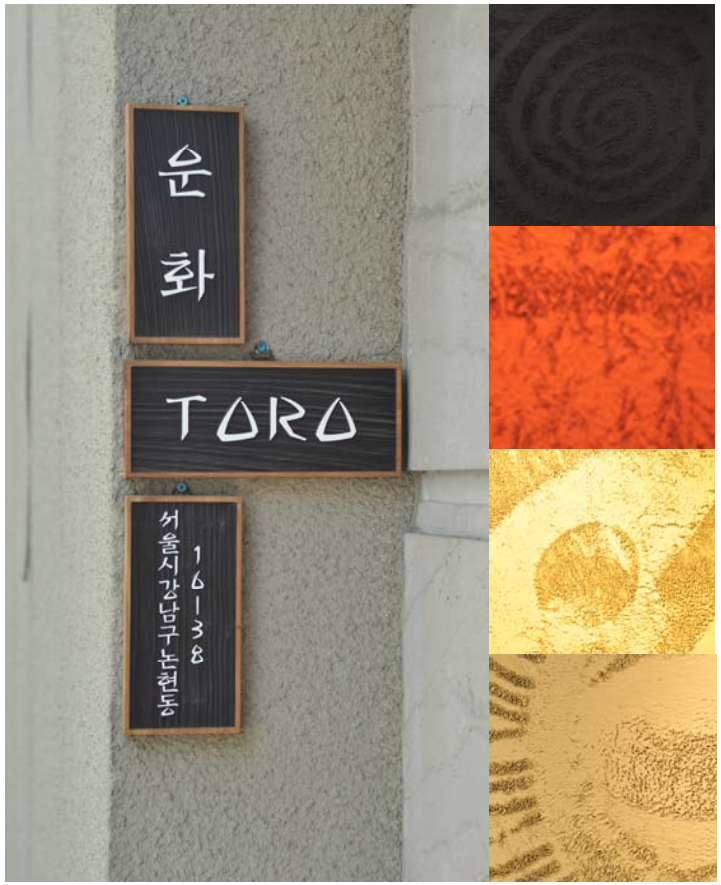
소시오컬처전망
SOCIO-CULTURE FORESIGHT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 **스팟 리포르타주**

취재 및 사진/글 : 김세은 (트렌드 리서처)



TORO

토로

최상의 자연을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럭셔리 라이프가 비롯된다. 의,식,주에 최상의 자연을 담아야 한다. 천연섬유로 만들어진 옷, 친환경 유기농 음식, 천연자재를 이용한 공간, 나만의 안식처 같은 공간 무해한 공간을 지향하는 것이 진정한 럭셔리 라이프라고 토로는 밝히고 있다. 흙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인증받은 건축재

페클레 한국공식지사 LISOPHE ©All Reserved. 2009

사진-1> 사진: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토로(TORO)

최상의 자연을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럭셔리 라이프가 비롯된다. 의,식,주에 최상의 자연을 담아야 한다. 천연섬유로 만들어진 옷, 친환경 유기농 음식, 천연자재를 이용한 공간, 나만의 안식처 같은 공간 무해한 공간을 지향하는 것이 진정한 럭셔리 라이프라고 토로는 밝히고 있다. 흙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인증받은 건축재

Toro origin(생산방식)

유기농 흙 인테리어, 전국 각지에서 추출되는 유기농 청정지역 흙을 직접 구입한다. 유기농 흙의 기준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의 흙으로 임야나 야산에서 추출한 흙은 3년 정도 자연숙성 시킨다. 흙 속에는 2억마리의 미생물이 있는데 불이 닿게 될 경우에 흙 속에 있는 유익한 미생물까지 사라지게 됨으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햇빛에서 자연숙성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숙성된 흙은 허브나 한약재를 혼합하여 마감재를 완성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흙의 칼라와 향기를 고려한 맞춤 식 제조로 주문 방식을 따르고 있다.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 All Rights Reserved 2009

크레이 칼라 Cray Colors

13년 전 화가의 그림의 재료로 사용되면서 처음 시작 된 토로의 역사 속 에서 볼 수 있듯이, 천연재료인 흙의 유익한 효능도 있지만 고유의 칼라를 사용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국내의 경우 경주는 오색황토, 강원도는 와목토, 산청의 백토, 남부지역는 산화철 함유가 많아 붉은 색감의 흙 등이 있다. 그것들의 고유의 칼라를 이용하여 인테리어적 요소로 접목한다. 토로 칼라는 눈을 편안하게 해주며, 간접조명시 그 느낌이 더 배가 된다고 하며, 럭셔리 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흙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칼라의 경우는 어두운 계열의 경우 숯을 갈아서 흙과 혼합, 그린계열의 경우 솔잎을 배합하여 색감을 연출한다. 인공적인 칼라가 아닌 자연에서 오는 은은한 색감은 우아함과 단아함을 표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반적인 베이지 톤의 칼라는 베이스 칼라로 숯 칼라나 다크 브라운 칼라등은 포인트 칼라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허브 테라피 Hub therapy

허브나 한약재를 함께 배합하여 향을 이용한 테라피 요소를 담고 있다. 허브는 다양한 종류 만큼이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공간 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언제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허브나 한약재를 배합함에 있어 우리의 선조들이 집을 지을때 크랙(crack:균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흙속에 짚을 섞어 지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와서는 그러한 전통방식을 고수한 부분에 테라피적인 요소까지 생각하여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내었다.

텍스츄어 Texture

콘크리트, 석고보드, MDF, Steel, 유리까지 거의 모든 소재 위에 구현이 가능하며, 시공작업 시 밑 작업을 할 경우 조금한 흠집이 있더라고 흙의 특성상 그대로 드러나기에 꼼꼼한 작업을 거친다. 그 위에 곱게 여러 번 품칠 작업을 진행하여 고운 표현효과를 연출한다. 또한, 다른 한가지의 방식을 핸드메이드로 아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자유로운 텍스츄어 효과를 연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전체 벽의 시공이 어려울 경우 마치 예술품과 같은 다양한 텍스츄어를 이용한 액자 형 제작을 요망, 걸어 둠 으로서 그 효과를 얻고 있다.

사진-2> 토로 내부/ 사진: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 All Rights Reserved 2009

Living in natural resources

도심 속 자연과 고요함을 연출하기 위한 인테리어 요소로 사용된 흙의 공간 속 에는 천연 자원들과 함께 하모니를 이룬다.
Wood, Steel, Stone등의 소재로 만들어진 가구 또는 소품, 내장재들과 함께 연출 되고 있다.
(시공자료사진첨부)

토로가 추구하는 키워드 (Wellbeing+ Design + Special value)

1.Natural Material/ 청정 지역에서 채취. 3년이상 자연 숙성, 천연허브와 미네랄 생수

2.Modern design/ 고품격자연스러운 색상, 독특한 표면질감 연출, 바탕면 재질의 다양성 수용, 기능성 첨가물 사용, 갤러리 분위기의 예술성 구현, 핸드메이드 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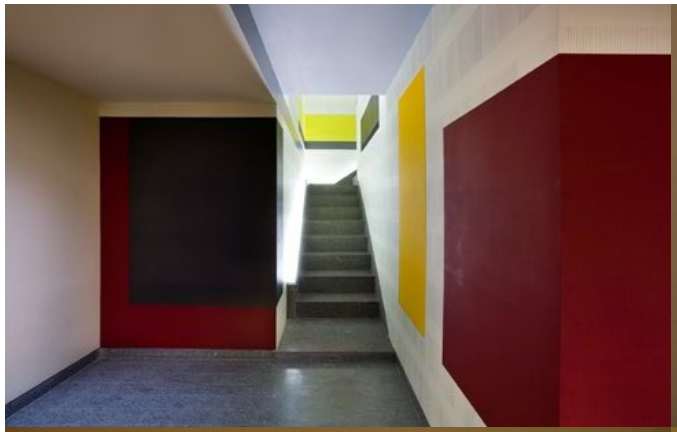
3.Eco Technology/
다중층 시공기술 -여러겹 시공, 각층의 기능이 다름(유해물질 차단층, 단열 방음 층, 허브기능성층…)
운화과학기술원과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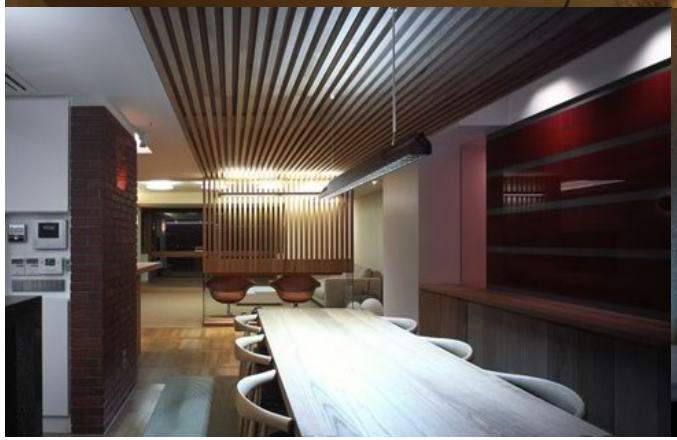
4.Healing Effect/
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습도조절, 항균, 항곰팡이 효과
단열효과
시멘트독, VOC 등 유해 물질 흡착 분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
정신집중력 , 아토피 증세 감소

국내 추세

프랑스, 미국, 영국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흙에 대한 관심이 높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국내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연구가 진행중이다. 스트레스와 유해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나만의 공간에서 휴식과 안정감을 위해 특히, 개인 주거공간이나 갤러리에서 많은 수요가 있으며, 대기업보다는 인테리어사 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급주택 인테리어에 많이 사용된다. 2007년 회사 설립 이후 꾸준히 전개되고 있으며, 가격 대비 일반 고급페인트에 비해 2~3배 정도의 가격대를 갖고 있지만 가격보다는 제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며, 경기상황에 따른 큰 타격은 없고 메스마켓보다는 일부 마니아 층에 수요가 꾸준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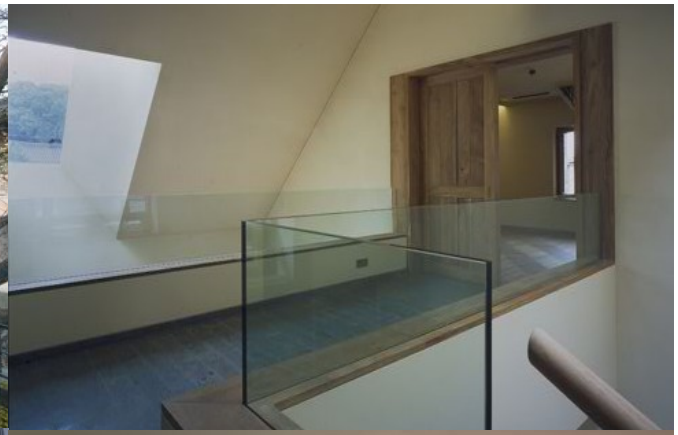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 All Rights Reserved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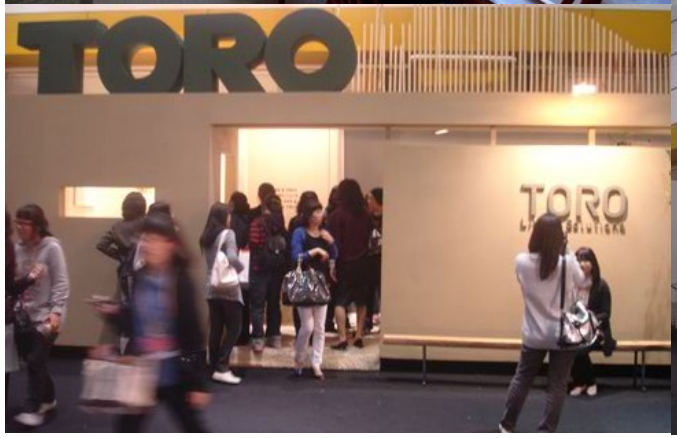




자료제공: 토로TORO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 All Rights Reserved 2009





자료제공: 토로TORO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 All Rights Reserved 2009

사진-3> 토로 외부/ 사진: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취재 후기

논현동 골목길로 들어서 보인 무지의 노란색 간판이 있는 주택이 토로의 본사는 작은 정원이 함께 있는 도심 속 숨어있는 독특한 공간이였다. 문 앞에 들어선 순간 은은한 허브향과 함께 흙으로 마감된 내부는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었다. 내부는 토로에서 제작한 액자와 각지에서 온듯한 미술품들이 진열되어 있어 작은 갤러리와 같은 공간을 연출하고 있었다. 13년전 화가 전형주씨가 처음 흙에 대한 영감을 받아, 2002년 이후 현재의 대표님과 건축가 최욱씨의 만남으로 발전하여 3년전 회사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성장하고 있다는 토로는 아직은 해외 수출이나 매스마켓에 진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가치를 아는 고객들과 꾸준한 거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일반 기업들과는 차별화 된 점이다. 또한, 칼라나 텍스추어 계발에는 오산에 있는 R&D센터에서 처음 발견한 전형주이사가 연구 계발하고 있다. 토로의 기존 제품이 아니라 마케팅과 생산까지 함께 진행한다는 코스메틱라인 또한 흥미로웠다. 2주전쯤 프레스에 발표 했으며, 세계 최초로 식물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성분을 코스메틱에 넣어 제품이 계발되었으며, 현재 명동과 몇군데 매장도 오픈 하였다고 한다. 식물 줄기세포에는 동물과 다르게 한번 뿌리를 내리면 10년~1000년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자생 할 수 있는 불멸의 성분 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술은 앞으로도 국내 차병원 과 지속적으로 연구계발될 부분이며, 네셔널 지오그레픽과 같은 해외 프레스들도 컨택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 All Rights Reserved 2009